

『교과서연구』의 발자취



김만곤

비상교육 자문위원,
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위원

I. 『교과서연구』 발간의 의의

『교과서연구』의 발간은 ‘국내외 교과서 및 교과서 관련 자료 전시관(교과서정보관)’ 운영과 함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핵심 사업이다. 재단 사이트(www.textbook.ac)에서 주요 추진 사업을 찾아보면 대략 10종의 자체 사업들 중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간헐적으로 혹은 여건에 맞추어 추진되어 온 것에 비해 이 저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발간되어 교과서정보관 운영과 함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내외적으로 교과서 정책 연구, 교과서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교과서 전문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실제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함수곤(1996), 한명희 외(2001), 김만곤(2008) 등 세 차례에 걸친 재단 발전 방안 연구에서도 『교과서연구』의 발간은 공통적으로 1순위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재단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기본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연구』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 관련 전문 저널로서, 재단의 자체적 노력은 물론 교육부와 여러 관련 기관, 교과서 전문 출판사 등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령 100호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교과서 전문지로서의 성장에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저널이 그만큼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교과서연구』

는 교과서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여론,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교육 제도, 교육과정, 편수·편집 실무, 교육 자료, 현장 연구, 선진 출판사 탐방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넓은 독자층을 형성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어야 하겠지만(김만곤, 2008) 피상적으로 보기에 이 저널의 독자층이 지령에 비해 과연 얼마나 두터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교과서연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는지 소략하게 그 내력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지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II. 『교과서연구』의 변천

『교과서연구』는 1988년 12월,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교과서 연구를 통해 한국 교육의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창간했다. 협회에서는 연간 3회씩(1990년은 4회) 약 10년간 30호(1998.5.30.)까지 발간했고, 1992년 8월 12일에 설립되어 자리를 잡게 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소(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이관하여 1998년 12월 31호부터 현재까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시행해온 체제와 유사하게 교과서 개발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 분야별·학교급별 전문가,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2004년까지 7년간은 연간 2회씩 매년 6, 12월에, 2009년까지 5년간은 연간 3회씩 4, 8, 12월에 발간했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는 연간 4회씩 3, 6, 9, 12월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무가지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 행정 기관, 교과서 출판사 등에 배포하여 왔다. 다음에는 창간호부터 99호까지의 내용 구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창기의 『교과서연구』 원고들은 우리의 열정과 순박함 같은 것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학창 시절 앨범처럼 미소를 짓게 하면서도 그 열정과 의욕, 자부심 같은 것들이 울울이 드러나 일면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 창간호(1988.12.)는 매우 단조롭게 창간사와 논문 5편, 자료(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만으로 구성되었고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모두 출판사 관계자들이었다.

창간호 목차 구성

- 창간사 - 교육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되고자(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사장 이종태)
- 논단 - 검인정 교과서의 변천사(장왕교재연구원 이대의)
 - 2종 교과서의 변천
 - 활자 발명의 역사적 변천과 가로쓰기 활자체 개발(보진재 이달훈)
 -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의 지질과 색도 문제에 관하여(동아출판 김현식)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2종도서 관계 조항의 개정 방안(교학사 양철우)
- 자료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8.20. 대통령령 제8660호

제2호는 창간호보다는 다양한 원고로 구성되었고 이때부터 특집 원고가 실리기 시작했다. 『교과서연구』의 꼴을 갖추고 교과서 편집인들의 애환과 노력상이 배어 있는 제2호의 목차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호 목차 구성

- 권두언 -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종태)
- 권두논문 - 교과서의 본질과 교과서의 연구(한국정신문화원 홍웅선)
- 특집 - 교과서 체제 개선에 관한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정태범)
 - 국어 교육의 제문제-현장 교육을 중심으로(이대부중 교사 정윤환)
- 논단 - 현행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업계의 동향(장왕교재연구원 이대의)
 - 외국의 교과서 공급 제도-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곽상만)
- 기획연재 - 교과서 편집론(출판문화연구소 문병덕)
- 단상 - 졸속 집필과 졸속 심사를 벗어나자(지학사 김영철)
 - 바람직한 교과서(지학사 조경래)
 - 승리 없는 전투(동아출판사 김철진)
 - 그래도 편집자는 외롭지 않아(동아출판사 최봉숙)
 - 교과서 편집을 마치고(금성교과서 주용준)
 - 바람직한 저자상(像)(민문고 조성준)
 - 교과서 유감(교학사 김춘규)

창간호부터 99호까지 『교과서연구』의 중심내용이 되어온 특집 원고의 주제와 필자 구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특집 주제와 필진 구성

연도	호	주제	필진 구성*
1988.12.	1	* 논단(5편)	출판 4 등
1989. 6.	2	교과서의 체제 개선에 관한 고찰(1편)	교수 1
		국어 교육의 제 문제-현장 교육을 중심으로(1편)	교원 1
1989. 9.	3	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향-세미나(3편)	교수 2, 연구 1
1989.12.	4	교과서관의 정립과 교과서 정책의 방향 모색(4편)	국회의원 4
		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향-교과서 개선을 위한 토론(10편)	교수 5, 출판 3, 교원 1, 언론 1
1990. 3.	5	영어 교육과 영어 교과서(1편)	교수 1
		현장 교사가 본 개편 중학교 교과서(9편)	교원 9
1990. 6.	6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부산(5편)	교원 5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대구(6편)	교원 6
1990. 9.	7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광주역(6편)	교원 6
		교과서 개선을 위한 좌담회-대전(5편, 토론 1편)	교원 5
1990.12.	8	현행 중학교 2종 교과서 평가(17편)	교수 8, 교원 5, 연구 2, 행정 1
1991. 4.	9	수학 교육과 중학교 수학 교과서(토론)	-
1991. 8.	10	제6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세미나(3편)	행정 2
		1991 교과서 개선을 위한 세미나(5편)	교수 3, 연구 2
1991.12.	11	(특집 주제 없음)	-
1992. 4.	12	고등학교 문학 작문 교과서와 국어(발제와 토론)	교수 1
1992. 9.	13	교과서 체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발제, 토론 3편)	교수 3, 출판 1
1992.12.	14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세미나(3편)	행정 3
		교과서 체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9편)	교수 5, 출판 4
1993. 4.	15	새 입시 제도와 학교 교육(좌담)	-
1993. 8.	16	교육 발전과 교과서 개발(11편)	교수 4, 연구 3, 출판 2, 행정 2
1993.12.	17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11편)	교수 2, 교원 7, 학부모 1, 언론 1
		중학교 2종도서 검정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16편)	행정(교육부 편수직) 14 등
1994. 4.	18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 방안(3편)	행정 1, 언론 1, 출판 1
1994. 7.	19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 기준(안)에 관한 공청회(6편)	행정 3 등
1994.12.	20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안 공청회(20편)	교수 10, 교원 2, 국회의원 2, 연구 3, 학부모 1, 행정 1, 출판 1
1995. 4.	21	교과서 제도의 개선과 앞으로의 과제(2편)	연구 1, 행정 1

연 도	호	주 제	필진 구성*
1995. 8.	22	2종 교과서 선정 어떻게 해야 하나(4편)	교원 2, 행정 1, 학부모 1
1995.12.	23	한국 교과서 발행 100돌 기념(5편)	교수 4, 연구 1
1996. 5.	24	제3차 대통령 보고 교육 개혁 방안 검토(3편)	교수 2, 행정 1
1996. 7.	25	교과서 연구 개발 활성화 방안(6편)	연구 4, 행정 1, 출판 1
1996.11.	26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평가(4편)	교수 3, 연구 1
1997. 4.	27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의 다양화(2편)	행정 2
1997. 8.	28	열린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혁(4편)	교수 2, 연구 1, 행정 1
1997.12.	29	좋은 교과서를 만듭시다(5편)	행정 1, 연구 1, 출판 1, 교원 1, 교수 1
1998. 5.	30	제7차 교육과정 개정(2편)	행정 2
1998.12.	31	한국교과서연구소의 과제와 전망(6편)	교수 4, 교원 1, 출판 1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개념의 재정립(5편)	교수 1, 행정 1, 연구 3
1999. 6.	32	초등학교 실험용 교과서 이렇게 편찬했다(5편)	연구 4, 교수 1
1999.12.	33	뉴 미디어 시대의 우리 교육(4편)	교수 2, 연구 1, 행정 1
2000. 6.	34	교과서 자유 발행 도서 제도의 의의와 방향(5편)	교수 2, 연구 2, 행정 1
2000.12.	35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 편찬(14편)	행정 13, 연구 1
2001. 6.	36	중학교 1학년 2종 교과서의 특징(10편)	행정 6, 연구 4
2001.12.	37	정보 통신 기술 활용 교육(7편)	교수 3, 행정 4
2002. 6.	38	고등학교 새 교과서의 특징(10편)	행정 10
2002.12.	39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6편)	교수 2, 교원 2, 출판 2
2003. 6.	40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략(5편)	교수 1, 교원 1, 행정 1, 연구 1, 출판 1
2003.12.	41	교과서 제도 현안 및 과제(7편)	교수 3, 연구 1, 행정 1, 출판 2
2004. 6.	42	제7차 교과서 평가-분야별(5편)	교수 1, 교원 2, 출판 1, 행정 1
2004.12.	43	바람직한 교과서 발행 제도의 발전 방안(10편)	교수 1, 연구 3, 교원 2, 행정 1, 출판 3
2005. 4.	44	광복 60주년, 교과서 제도 변천 : 회고와 전망(6편)	교수 2, 교원 1, 행정 2, 연구 1
2005. 8.	45	국어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5편)	교수 2, 교원 2, 연구 1
2005.12.	46	수학·영어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6편)	교수 4, 연구 2
2006. 4.	47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 방향(5편)	교수 2, 연구 2, 교원 1
2006. 9.	48	과학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6편)	교수 2, 연구 1, 행정 2, 출판 1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국어연구원 간 업무협정의 경과와 과제(3편)	행정 1, 연구 1, 출판 1
2006.12.	49	예술·체육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6편)	교수 1, 연구 3, 교원 1, 행정 1
2007. 4.	50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알아본다(5편)	행정 5

연도	호	주제	필진 구성*
2007. 8.	51	디지털 교과서의 가능성 탐색(5편)	연구 2, 행정 1, 교원 1, 출판 1
2007.12.	52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6편)	교수 5, 연구 1
2008. 4.	53	교육과 교육과정 정책 동향(7편)	행정 4, 연구 2, 교원 1
2008. 8.	54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7편)	교수 3, 연구 2, 행정 1, 교원 1
2008.12.	55	지역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6편)	행정 4, 교원 1, 출판 1
2009. 4.	56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6편)	교수 3, 연구 2, 행정 1
2009. 8.	57	인정도서 확대 정책, 그 내용과 전망(5편)	연구 2, 행정 2, 출판 1
2009.12.	58	미래형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의 미래(6편)	교수 3, 연구 2, 행정 1
2010. 3.	59	2010 교과서 선진화 방향의 구현(7편)	교수 1, 연구 4, 행정 1, 교원 1
2010. 6.	60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위한 과제(4편)	교수 2, 행정 2
		교과서 선진화의 길(특별 대담)	교수 1, 행정 1, 연구 1, 교원 1, 출판 1
2010. 9.	61	교과서 집필로 본 교과교육과정(7편)	교수 6, 연구 1
2010.12.	62	교과서 채택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6편)	행정 3, 교원 3
2011. 3.	63	좋은 교과서-체육·음악·미술(7편)	교수 1, 행정 1, 교원 3, 출판 2
2011. 6.	64	좋은 교과서-도덕·사회·역사(5편)	교수 4, 출판 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2011: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16편)	교수 5, 연구 2, 교원 4, 언론 1, 출판 2, 행정 2
2011. 9.	65	좋은 교과서-수학·과학·실과(기술·가정)(8편)	교수 3, 연구 2, 교원 2, 출판 1
2011.12.	66	좋은 교과서-국어·영어·제2외국어(9편)	교수 2, 연구 2, 교원 3, 행정 1, 출판 1
2012. 3.	67	인정도서 정책의 방향(5편)	교수 1, 연구 1, 행정 2, 출판 1
2012. 6.	68	인정도서 정책의 구현 방향(8편)	연구 2, 행정 5, 출판 1
2012. 9.	69	초등 국정도서, 이렇게 만든다(7편)	교수 6, 행정 1
2012.12.	70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 교육 동향(17편)	교수 6, 연구 2, 교원 2, 행정 3, 출판 4
2013. 3.	71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연구의 방향(특별 좌담회)	-
		나는 이런 교과서를 찾는다(9편)	교원 9
2013. 6.	72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6편)	교수 5, 연구 1
2013. 9.	73	교과서에 어떤 지식을 담을 것인가?(8편)	교수 6, 연구 1, 교원 1
2013.12.	74	2013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9편)	교수 5, 연구 1, 교원 2, 행정 1
2014. 3.	75	인정도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6편)	교수 1, 연구 2, 행정 3

연 도	호	주 제	필진 구성*
2014. 6.	76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1)(8편)	교수 3, 교원 3, 행정 1, 출판 1
2014. 9.	77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2)(18편)	교원 7, 학생 7, 학부모 3, 행정 1
2014.12.	78	2014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넓게! 깊게! 다양하게!(9편)	교수 4, 연구 2, 교원 2, 행정 1
2015. 3.	79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1)(6편)	교수 4, 연구 2
2015. 6.	80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과서(2)(6편)	교수 3 등
2015. 9.	8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5편)	교수 2, 연구 3
2015.12.	82	2015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달라지는 교과서 구성-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8편)	교수 3, 연구 3, 교원 1, 행정 1
2016. 3.	8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군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4편)	교수 3, 행정 1
2016. 6.	84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과서의 발전 방향(4편)	교수 3, 교원 1, 행정 1
2016. 9.	8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방향(5편)	교수 1, 연구 1, 교원 2, 출판 1
2016.12.	86	2016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내의 평가(7편)	교수 3, 연구 3, 교원 1
2017. 3.	87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교과용도서의 특징과 활용 방안(4편)	교원 4
2017. 6.	88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2편 및 교원 좌담)	행정 2 및 교원
2017. 9.	89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초등학교)(5편)	교원 5
2017.12.	90	2017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 체제(7편)	교수 3, 연구 1, 교원 2, 출판 1
2018. 3.	91	새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3~4학년군 교과서의 특징과 활용(6편)	교수 6
2018. 6.	92	새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5편)	교원 5
2018. 9.	9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교과서의 창의적 활용(4편)	교원 4
2018.12.	94	2018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과서(12편)	교수 3, 연구 3, 교원 1, 학생 1, 학부모 1, 출판 2, 행정 1
2019. 3.	95	환경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5편)	교수 2, 교원 3
2019. 6.	96	인구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4편)	교수 2, 교원 2
2019. 9.	97	진로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5편)	연구 2, 교원 3
2019.12.	98	2019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교과서 자유 발행제 안착을 위한 교과서 질 관리 방안(11편)	교수 4, 연구 4, 교원 1, 출판 1, 학부모 1
2019. 3.	99	교과서에서의 선거 교육(3편)	교수 2, 교원 1

* 연구: 연구소 직원 및 연구회 대표, 행정: 교육부·교육청 직원 등, 교원: 교장·교사, 출판: 출판사 대표 및 직원, 언론: 기자 등

『교과서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과 제도의 변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특집 주제들은 교과서 정책 추진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부지런히 수행해 왔다.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특징 소개 및 현장 적합성 검토, 창의적 활용 방안 모색, 교과서 평가, 교과서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특집 구성은 물론이고 특히 1990·2003·2011·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좋은 교과서에 대한 성격 규명과 좋은 교과서 개발 전략 모색, 좌담회·세미나·공청회 개최 등은 그러한 의도와 노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특집 원고 외에도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4월에 발간된 21호의 경우 ‘과연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13명(교육부 편수직 1, 교수 3, 교사 3, 출판사 직원 3, 연구원 1, 학부모 2명)의 논단 원고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교과서연구』를 통해 획기적·결정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단기간의 원고 집필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요구와 의욕도 보여 주고 있다. 가령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안 공청회, 교과서 공급 제도 개선 방안, 자유 발행 제도의 의의와 방향(2000.6.), 교과서 제도 현안 및 과제, 교과별 교과서 발전 방향, 디지털 교과서 가능성, 인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위한 과제와 같은 주제들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도와 관심을 잘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끔은 의욕적인 관점으로 광범위한 주제들도 설정하여 왔다. ‘새 입시 제도와 학교 교육(좌담, 1993)’, ‘대통령 보고 교육 개혁 방안 검토(1996)’, ‘열린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 개혁(1997)’,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개념의 재정립(1998)’, ‘뉴 미디어 시대의 우리 교육(1999)’, ‘정보 통신 기술 활용 교육(2001)’, ‘국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2008)’, ‘미래형 교육과정과 우리 교육의 미래(2009)’ 등은 시대의 흐름을 보여 주면서 우리 교육 전반에 관한 『교과서연구』의 관심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011년에 시작된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지상 중계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면모를 보여 주는 특기할 만한 기록이 되고 있다.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2011)’,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2012)’,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2013)’,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2014)’, ‘달라지는 교과서 구성-지식 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2015)’,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과서 내의 평가(2016)’,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 체제(2017)’,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과서(2018)’, ‘교과서 자유 발행제 안착을 위

교과서연구

100

한 교과서 질 관리 방안(2019)’으로 이어진 이 심포지엄의 주제들은, 그동안 교과서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심포지엄도 이제 변곡점에 이르렀다. 202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전고미증유의 변화를 맞게 된 교육의 방향, 교재의 성격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 직접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 설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교과서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교과서 발전과 개혁을 위해 현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수준 높은 행사의 가능성도 열어 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1988년 12월의 창간호로부터 100호 발간을 목전에 둔 최근까지의 흐름 중에서 몇 가지 인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보고자 한다.

초기의 『교과서연구』를 살펴보면 그 내용 구성이 소박하면서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향이였다. 창간호와 제2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후 한동안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개선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한 특집 중심으로 편집되었는가 하면 때로는 교과 교육을 중시하여 21세기를 향한 우리 교육의 위상을 교과 교육의 발전 측면에서 다루는 등 시기별로 긴요한 주제를 설정하고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전국 각 지역별 좌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원고를 실었다. 집필진도 교수, 연구원, 행정가는 물론 국회의원, 교사, 출판사 편집인과 대표, 학부모 등의 이름이 자주 보여 다채로움을 더해 주었다. 가령 1994년 4월에 발간된 제18호의 경우에는 권두논문, 특집, 교과교육, 논단, 교과용도서 현장 적용, 연재, 탐방, 단상, 보고(현장교육 연구보고), 자료 등 37개 원고가 실렸는데 필자로는 교수, 교사, 교육 행정가 외에도 변호사, 논설위원, 출판사 직원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현재의 『교과서연구』와 비교하면 다소 비체계적이긴 하지만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유연성·다양성을 보여 주던 형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형식성·논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늘날의 경향이 이전보다 비교적 획일적이고 단조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필진 구성에서 출판사 편집진이나 현장 교사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그러한 경향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혹은 어떤 점에서 더 유익한 것인지. 어떤 반성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비교적인 관점에서 제99호(2020.3.)의 목차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99호 목차 구성

- **특별기획** : 교과서에서의 선거 교육
 - 선거 교육 내용 개선 방안 / 김명정
 -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선거 교육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참정권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과제 / 이윤주
 - 중등학교에서 선거 연령의 하향에 따른 시민 교육의 과제 / 배영민
- **연구논문**
 - 과학과 핵심 역량에 대한 통합 과학 교과서의 반영도와 학생들의 인식 / 김현섭
- **국제동향**
 - 떠오르는 교육 강국, 에스토니아의 학교 교육 / 김현정
- **현장교육**
 - 연극을 적용한 중학교 사회 수업 / 구민정
- **초대석**
 - 드라마, 예능, 대입 제도 / 진동섭
-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군 효명 세자와 춘앵전 / 엄예나
- **교과서 개발자 이야기**
 - 또 다른 나의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되었고... / 성영란
- **탐방**
 - 학교민주시민교육교사연구회 '마중물'
- **안내사항** : 『교과서연구』 온라인 간 안내, 원고모집,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 교과용 도서 정·보완 온라인 시스템, 교과서 개별 구입, 교과서 원문 DB 이용 협약

Ⅲ. 『교과서연구』의 앞날을 위한 제언

『교과서연구』 독자들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내외의 의견 청취 없이 『교과서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보다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로 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이고 혹 착안 사항이 된다면 별도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시도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과서에 관심이 없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여기거나 소규모일지라도 『교과서연구』가 교과서에 대한 관심에 비

레하는 관심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무용한 관점일 뿐 아니라 결코 그렇지도 않다. 사실은 학창 시절이나 자녀 교육 기간을 지낸 다음에도 내내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어서 사람들은 다만 교과서에 대해 이런저런 추억만 간직하게 될 뿐이다.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연구』가 이제 100호 발간을 목전에 두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교과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기초적 연구 사업을 면면히 추진하고 있다면 『교과서연구』의 발간 또한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게 된 것이다. 외부의 직접적·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노력의 성과 여부에 따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교육과 교과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교과서’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 해도 가르치고 배울 교재는 필요할 것이므로 ‘교과서연구’는 언제나 ‘교재’에 관심 깊은 모든 이들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그렇게 되는 날을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오늘 당장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교육에도 ‘미증유의 변화’가 다가왔다. 그 변화는 우리의 기대나 희망을 반영해 주지 않고 찾아왔다. 즉, 이 변화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어서 『교과서연구』처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저널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증대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교육의 과거보다 전혀 예기치 못한 미래의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시대가 너무나 빨리 닥쳐온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교수, 교사, 행정가 중심의 ‘독점적’ 원고 집필을 탈피해서 폭넓은 분야의 자원 인사들로부터 교과서(교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과서로 생활하는 사람들(예: 출판사 편집인, 교사)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저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인사들의 폭을 장차 학생들이 진출하게 되는 우리 사회 전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발간 체제 문제이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연구기관의 저널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북으로 전환되었다. 『교과서연구』도 100호(2020.6.1.)부터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늦었고 미흡하지만 잘된 일이다. 미흡하다는 것은 대학, 시도 교육청, 연구기관 등은 종전대로 종이책을 그대로 배포하고 초·중·고등학교만 온라인 발행 대

상으로 하여 종이책 배부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이는 결코 종이책 배부 대상을 앞서는 계층으로 우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선진화한 독자층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결정이다. 언제 또 전체 배부 대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단안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하루속히 전체를 디지털북 배부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심스럽고 어렵다면 실제로 요청을 받아서 특별히 종이책을 요청하는 기관과 아직도 종이책을 찾는 사람이 많은 도서관 정도를 남기고 디지털화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 저널의 독자를 기관회원제(機關會員制)로부터 개인회원제(個人會員制)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도서나 자료의 수가 적어서 이러한 저널이 귀하고 소중하게 취급되는 시대가 아니다. 즉 교육기관, 행정기관, 출판사 등의 직원들이 그 기관에 배달되는 한두 권의 월간지나 저널을 기다려 열독하는 시대가 아니다. 또 학교나 교육청, 출판사에서 계간으로 배달되어 오는 ‘친절한’ 저널에 대해 특별히 고맙게 여기기도 어렵거니와 종이책인 『교과서연구』가 101호부터 배달되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항의를 하거나 섭섭해 할 기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문 영역의 저널을 아무나 볼 수 있는 종이책으로 인쇄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스스로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고, 가령 직원이 500명인 기관에서 일부 직원들이 이 저널을 보겠다고 줄을 설 것 같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독자들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찾아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시대이며, 그러한 경우의 지식과 정보라야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요청하지도 않는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은 오히려 귀찮게 여길 뿐이다. 그러므로 이 저널을 종이책으로부터 디지털북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개인회원제를 도입·적용하는 과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다. 회원이 되고자 할 때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독자들은 마침내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인쇄와 배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된다면 원고료를 차등 지급할 수도 있고 정책·학술 연구비로 전용할 수도 있다. 또 회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광고료 인상 등으로 재단의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의 무가지 배포 대상은 아무리 많아도 광고주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교과서연구』의 기획·편집위원회 구성 시스템도 바꿀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의 정관과 이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고 저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추진 역량을

교과서연구

100

가진 기관이나 개인(개인의 경우 위원장으로 공모)을, 사업 추진 기간(예: 향후 2년간 혹은 105~112호)과 사업 내용, 추진 절차와 요령, 사업비 등을 밝힌 공모를 통해 편집을 주관할 기관(혹은 개인)으로 선정해 주면 재단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그 기간 동안 이 저널을 위탁 발간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경우 기획·편집위원장의 자격으로 기획·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의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기보다 재단 발전을 위한 기여 계획을 제출받아 이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 재단에서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교과서연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범박한 제안을 한 것이므로 가상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 

필자 소개

1969년에 교사가 되었고 2010년 봄에 퇴임했다. 아이들 스스로 계획·실천·평가하면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많이 혹은 귀신같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백 배는 더 중요하다는 교사 시절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 한때 교육부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적도 있다.